전시 행사 소식

온라인 IT 취업박람회

청년 실업난 해소와 기업의 IT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온라인 정보통신 취업박람회인 'IT 잡플러스(JobPlus) 2003'이 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관으로 오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설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는 와이즈인포, 코리아리크루트, 잡앤비즈, 코리아TM, 아미잡 등 5개 IT전문취업사이트와 취업 컨소시엄을 구성, 온라인 취업전문사이트(http://job.ihd.or.kr)를 공동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IT전공자와 교육이수자(14만명), IT자격취득자(300만명), IT경력자(123만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채용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IT국제관, 유망직업관, 헤드헌팅관 등 총 6개 주제관으로 나눠 진행되며, 특히 차세대 IT전문기술 인재를 위한 홈네트워크, 차세대PC 및 이동통신,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IT신성장 동력관을 별도로 마련해 분야별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국내 IT분야의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등 800여 개 사가 이번 행사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1500명 이상의 IT전문인력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대덕벤처 판로 개척 해외 로드쇼

대전시가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의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도시별 특화 마케팅에 나선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미국 실리콘밸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베이징 등 3개 해외 도시를 각각 IT · BT · IBT 등 특화 마케팅을 위한 전진 기지로 최종 확정하고 투자 유치단을 파견하는 등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지역 내 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IT 제품의 해외 시장으로 선정하고 한민족IT네트워크(KIN)의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북미 시장 내 안정적인 제품 판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지난 6월 경제 교류협정을 체결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지역 BT 제품군의 해외 판로로 확정, 내년 상반기까지 프랑크푸르트에 가칭 '한독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국내인으로 구성된 경제 단체인 DUCC와 베를린 주정부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중국 중관촌밸리를 IT · BT 주요 해외 거점 시장으로 정하고 지난 10월 통상 주재관을 파견한 심양시와 허베이시를 연결하는 시장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외 특화 마케팅으로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벤·처·이·슈

전자신문

벤처기업 M&A 쉬워진다

내년 3월부터 신-구株 주식교환 허용

인수합병 대상 비벤처 주요 주주로 확대

홍기철 '벤처육성 특별법 개정안' 확정

◀ 벤처기업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주와 구주간 주식교환이 허용된다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실은 기사

〈2003년 10월 30일 전자신문 2면〉

문화일보

경제 다시 세우자

"벤처신화 아직 살아있다"

▶ 벤처위기의 시대라고 하지만 확고한 전문성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벤처기업가 3명을 세대별로 소개했다.

협회 추천으로 그래텍 배인식대표, 코캄엔지니어링 홍지준대표, 벨웨이브 양기곤 대표의 경영철학이 소개된 기사

〈2003년 11월 1일자 문화일보 특집면〉